

# “과학적인 양돈경영기법을 도입하자”



윤희진  
(주식회사 다비육종 대표이사)

몇년만에 월간양돈 독자들을 대하게 되니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돼지애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먼저 살펴보면, 30년전 GNP 규모에서 세계35위 이던것이(당시 필리핀이 36위) 이제는 12위권으로 올라섰고 지난해의 1인당 GNP 역시 1만\$을 넘어 서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선진국을 향한 산업구조 조정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퇴조하고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붐을 이루고 있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과감한 체질 개선이나 기술혁신(Innovation) 없이는 예외없이 살아 남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사료, 축산쪽은 어떠한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옥수수만 하더라도 톤당 190\$을 기록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수급전망이 밝지 못한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양돈업계는 수출에 혈안이 되어있고 동부지역에서는 50만두, 100만두 규모의 양돈농장이 계속 늘고 있다. 물량뿐만 아니라 수출원료돈 사료에 보리를 30% 첨가 한다든지 SPMD(Safe, Pure & minimal Disease) 규격등 청정돈육으로 품질 차별화를 들고 나온다.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입 완전개방은 15개월 남았는데 전국에 1만5천개 회원사 점포를 가진 한국수퍼 체인협회는 작년 서울근교에 6,000톤 규모의 육류저장고를 지어놓고 완전수입 개방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반면, 국내 사료업계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어 버림받은 것 같은 묘한 느낌마저 든다.

그러면 우리의 양돈업은 어떠한가?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적당히 지은 돈사에서 싸구려 인력을 찾고 거세도 하지 않고, 돼지가 아플땐 약으로 해결하면서 주인은 바깥으로 걸도는 그러한 양돈은 분명 아니다. 양돈경기도 이제 좋기 글렀지만 우선 소비자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돈업이 살아 남을 수 있는 3가지를 간단히 꼽으라면 첫째는, 농장단위에서 효율위주, 품질위주의 관리를 하여야 하겠다. 모든 두당 무조건 2,300kg(22두 출

하×105kg) 이상 출하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사람들이 말하는 5,000파운드와 같은 목표이며 국내에서도 우수한 농가들은 충분히 해내고 있다. 합리적인 시설과 고능력 종돈, 고효율 사료가 필요하고 여기에 걸맞는 사양기법과 경영주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계열화이다. 사료와 종돈의 자체조달 혹은 공동구매 그리고 전산기록과 기술지도를 통한 품질관리, 마지막으로 유통까지를 커버하는 협업형태를 말하며 개별 농장으로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각 도의 양돈조합과 도드람 그리고 김제 축협이나 미원농장같은 계열주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말한다. 사료 하나만 하더라도 2월 오르기전 가격기준으로 평균 kg당 240원 이하이면 적당하고 280원대에 가깝다면 곤란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셋째는 우리나라 양돈산업 전체로서의 조직과 경쟁력(정책포함)인데, 이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고 싶다.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 4만5천 양돈농가가 두 갈래로 나뉘지 않을까 짐작한다. 하나는 부업 정도의 규모로서 생계를 크게 의존하지 않고 지금보다 약간 규모를 늘이거나 시설 개보수를 하면서 가는데 까지 가보는 것이다. 투자를 안하는 대신 빚이 없어야 하며 감가상각 금리부담등이 없으니 그런대로 경쟁력이 있다. 또 하나는 전업·기업규모로서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배수진을 친 양돈이다.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두세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고용노동이 필요 없는 가장 경쟁력 있는 적정규모는 주간 6복~8복분만(모돈 135두~180두) 규모이다. 일관사육이 힘들다면 번식분만까지만 하고 자돈으로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올인·올아웃이나 주간관리(목요일이유), A.I. 등은 기본이고 슬러리식 분뇨처리와 농지환원 방법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94~'95년에 걸쳐 주간 6복 모델 돈사를 운영해 본 결과 1인관리로서 P.S.Y. 23.5두, 매출액 이익률 30%가 넘는 놀라운 결과를 얻은 적이 있다.

또 하나의 최신 기법으로는 조기격리이유(SEW)를 통한 모돈·자돈 분리사육이다. 모돈 1,000두 정도의 대단위 사육에서는 자돈과 비육단계를 분리하면(3-Site production) 더욱 좋으나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관리가 전문화 단순화되고 규모를 확장하는데 경제적이며 무엇보다도 위생상태가 개선되어 약제 잔류의 고민에서 해방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소득이 있다. 예를들어 마음맞는 다섯사람이 있다면 세사람은 모돈 100~150두씩을 키우고 한사람은 자돈만, 한사람은 비육돈만 키우는 식이다.(자돈·비육돈 농장은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야 좋다) 17일령 전후의 조기이유가 어려울 것 같지만 이제는 대단한 기술이 아니며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물론 일본의 경우에도 이미 O·K목장이란 곳에서 3단계 분리사육을 시행한 결과 지육kg당 원가를 430엔에서 350엔(82% 수준)으로 떨어뜨린 실적이 있으며 골치아픈 PRRS마저도 해결되었다고 한다.

최근 몇년동안 우리나라에 65개의 양돈단지가 생겨났다. 전체 사육두수의 15%가 넘는 엄청난 숫자이다. 여러 약조건을 극복하고 단지조성에는 성공하였으나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운영상태가 심각한 곳이 한둘이 아니다. 미국에서 최근 5년내에 신설한 양돈장치고 이렇게 1~2만두씩 한군데서 일관사육하는 곳은 없다고 한다. 투자의욕은 좋으나 이제와서 70년대식의 구식농장을 지어서는 앞서 얘기한 효율위주의 양돈이 되기는 힘들다.

유럽과 일본의 양돈은 정체되고 대만의 경쟁력은 전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최신 양돈기법을 도입하여 양돈에서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자.